

회의록

- 회의명 : 제 24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3. 22(금) 18:10 ~ 20:45
- 장 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 3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김혁수 위 원
 나종영 위 원
 유인택 위 원
 이승정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3월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경 신임 위원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019년 봄을 맞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에서 개최되는 위원회 그리고 첫 위원회 워크숍에 바쁘신 중에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제 247차 정기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공개 추진(안) 등 총 5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학 사무처장 직무대행

- 예, 위원 11인 모두 참석해 주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위원 11인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학 사무처장 직무대행

- 예, 위원회 회의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1번은 대면회의였고, 246차는 서면회의였습니다.

그래서 245차 대면회의에서는 13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9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그리고 3개의 안건은 수정하여 의결되었어요.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공모 추

진계획(안)은 수정 보완하는 조건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진행한 246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차와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지원심의 결정의 건, 2019년도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심의 결정의 건, 2019년도 지역명소활용공연 지원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 보고하신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은 5개의 의결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안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공개 추진(안)입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회의자료 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을 일반에 공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거 위원회 속기록은 1기, 2기 위원회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3기부터 약식으로 정리된 기록이 공개되었고요. 전체 회의록은 공개가 되지 않고 공개를 원하는 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전체회의의 모든 의사발언을 속기한 기록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전 국민들이 위원회 정책과정 내용을 자유롭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속기록 공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번의 공개 절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로 회의 당일에 속기록이 작성되고요. 2단계로 회의 당일 지나서 1주차에 속기록 내용 중에 오탈자 등의 일부 자구 정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정된 속기록 내용을 2주차 위원님들께 일단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 확인을 거친 속기록을 차기 회의 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최종 확인을 거쳐 확정을 하게 되고 확정된 회의록은 차기 회의가 지나서 1주 차 이후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하도록 됩니다. 오늘 속기록 공개 안건이 의결되면 오늘 회의인 3월 회의의 속기록을 4월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확인받아 최종 확정하고 4월 회의 이후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

시하는 일정으로 모든 속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병주 기획조정부장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안건번호 제724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공개 추진(안)을 논의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 이것은 조금 전 워크숍 때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력 같은 것을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권한대행께서 2기 이후에 전체회의 속기록이 의결안건이나 장소, 일시 등만 요약한 결과보고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경과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경화 사무처장 직무대행

- 회의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05년도에 위원회가 출범해서 4년 정도, 정확하게 2기 정도까지는..... 저희 규정상의 용어로는 회의록이 아니라 속기록입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개요와 논의결과만 있고, 논의결과를 뒷받침하는 발언내용들을 국회에서 의사록이라는 수준으로 저희가 공개를 해 오다가 3기부터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아마 2007년도, 2008년도 무렵부터 위원회가 사실상 1기 때와 같이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이 많이 저해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저희들도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바뀌다보니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자율성 등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1기는 그런 면에서 그 이후의 위원회보다는 논의 구조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워크숍 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속기록을 공개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블랙리스트 이후 “왜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졌느냐?”라고 할 때 결국 위원회에서 충분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회의결과만 공개되고 실질적으로 회의결과를 뒷받침하는 위원회의 발언 내용들은 모두 비공개 형태가 되었습니다. 단지 국회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작년도 아르코혁신TF에서도 회의록 공개부분이 정식 혁신의제(안)로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새예술정책에도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그리

고 위원님들의 책임성 제고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의록 공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실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해 실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이야기한 대로 새예술정책과 아르코혁신(안)의 23개 과제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공개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 신나는 예술여행(발굴형) 추가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이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안건번호 제 725호 2019 신나는 예술여행(발굴형) 추가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0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총 8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돼서 지난번 245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1억 3,000만 원의 잔여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10페이지 (1)번을 보시면 지역협력특화사업이 1억 7,000만 원, 지리적문화소외지역순회사업 3억 6,000만 원,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 6억 원으로 총 11억 3,000만 원의 잔여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발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는 별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신나는예술여행(발굴형) 사업개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회경 위원님께서서는 전체적인 것을 몰라서 1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발굴형 사업은 크게 지역협력특화사업과 지리적문화소외지역순회사업,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 정기공모 결과 신청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유형별 적정 사업이 부족해서 잔여예산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목적 세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향유사업 추진으로 지역기반의 운영 주체를 발굴·육성하는 지역협력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수혜 균형 및 수요 대응을 고려한 추가 공모로 단체별 정액지원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연도 중반에 이루어져 사업 진행 일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단체별 지원액 및 진행횟수를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은 발굴형사업 유형 중에서 지역협력특화사업 민간주도형에 6억 3,000 만 원,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은 당초 9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은 결정되었고 나머지 4억 원은 축제형사업과 역량강화형으로 1억 원으로 해서 총 11억 3,000 만 원을 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추가공모 계획이 반영된 표와 같이 각 유형별, 세부사업별 예산 변경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협력특화사업 같은 경우 1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협력특화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총 22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충남북, 세종, 제주, 광주, 경남, 울산, 경북 등 지역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협력특화사업을 별도로 추가하고 신나는여행 확산사업에 대해서는 축제형과 역량강화형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지원대상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 법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신청을 받도록 하고요. 광역·기초 문화재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2차 정시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하고요. 뒤에 보고를 드릴 청년예술인 사업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협력특화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의 자생적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발굴·기획·확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대상지에서 서울지역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8페이지를 보시면 총 22개 중에서 7개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의 대상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은 축제형과 역량강화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축제형은 신나는예술여행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연계해서 문화향유 프로그램 쇼케이스,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축제형 행사 기획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차 심의에서 영남권 지역이 1곳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충북권과 호남권 지역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은 신나는예술여행 신규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순회처 및 수요자 특성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 기획·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지원규모는 총 11억 3,000만 원의 예산에서 지역협력특화사업은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별 9,000만 원 정액지원으로 접수받아 총 7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 축제형은 2억 원씩 2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형은 1억 원의 사업으로 1개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원심의계획은 지난번 공모계획 대로 심의기준을 가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및 인터뷰심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모접수를 받아서 5월 달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사실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응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못 뽑은 거 많아요? 그러면 추가 공모를 할 때 그에 대한 안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지금 대부분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대부분 사업들이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축제형 사업으로 요구했는데 단체들의 공연을 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축제형과 역량강화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받는다고 했더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축제형과 역량강화형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제가 물어볼게요.
12페이지의 횡수를 보면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9,000만 원을 선정건수로 나누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갖고 36회를 한다는 겁니다. 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횡수니까 그 얘기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프로그램 횡수에 대해서는 15페이지를 보시면 횡수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의 행사를 할 때 공연만 할 수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하나가 프로그램의 횡수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공연하는 게 1회의 횡수가 아니고 1번 공연을 할 때 체험프로그램도 넣고.

○나종영 위원

- 1번 할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데 표현을 왜 이렇게 해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그래서 공고문에는 그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리고 2억을 2로 나누면 1억이고 1억을 20회로 나누면 500만 원인데요. 1회라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합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해당 단체가 요구하는 계획에 따라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하나의 행사에 5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5회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로그램 횟수가 저희들 경영평가의 성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단체들에게 최소한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은 지난번에 아픔을 겪었던 사업인데요. 154개가 신청했는데 1건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9억이죠? 지난번에 3억을 선정했고 6억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나는예술여행을 보면 2억 원짜리 2개에 1억 원짜리 1건입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1억 원은 지역협력특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이것도 부족한데 왜 그쪽으로 보내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민간예술단체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민간협력사업의 예술단체지원사업으로 했고, 지원규모도 당초에는 1억에서 2억 원까지로 했는데요. 9,000만 원까지로 해서 많은 단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 다음에 신나는예술여행사업 축제형을 보면 특정지역을 제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산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김기봉 위원

- 그런데 부산을 선정했으면 대구, 경북, 경남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복권이나 호남권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김기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부산이 되었기 때문에 경남권 전체를 제외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1건을 선정한 것 때문에 영남 전체를 드러낸다는 게 균형상 맞지도 않고요. “기 선정단체의 사업추진지역을 고려하여 중부권 및 호남권은” 이 말은 아예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괜히 굵어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심의위원들한테 앞에 선정된 지역이 부산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선정해 줄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부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김기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동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나종영 위원

- 동의합니다.

○이승정 위원

- 동의합니다.

○강홍구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승정 위원님, 강홍구 위원님, 나종영 위원님 등 다수가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낼 때 부산지역이 이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남권 전체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위원

- 그 다음에 역량강화형 사업은 아르크혁신 23개 과제 중에서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고문에 보다 분명하게 설명되었으면 합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면 역량강화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선정된 1곳과 이번에 선정할 2군데로 총 3군데잖아요? 3군데만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입니까?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역량강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김기봉 위원

- 그러면 작년도 사업 부분을 한다는 겁니까? 2018년도 사업 중에서 우수한 것들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문화향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범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이 열린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직전 연도의 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모델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출 감사

- 김기봉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광역권으로 구분해서 한 것 같은데요. 내부 사정을 모르는 예술단체들을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고려해라.” 이런 부분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을

생각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납득하면 불필요한 수고를 덜고요. 불필요한 기대치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사업들은 광역권으로 배분하는 사업들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저희들이 제일 밑의 단서조항에 선정 후 일정, 장소, 프로그램 등은 예술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초 저희가 나주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개최지를 위원회가 이전한 곳 중심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가 다른 지역도 같이 하자고 해서 3군데 정도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 나주 중심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 가지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단서조항에서 선정된 단체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공고가 나갔을 때 권역별로 선정한다는 게 나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권역에서 하나씩 뽑겠다고 나갔으면 선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기회를 준다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지를 않았잖아요?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지역별 배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김기봉 위원

-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단서조항으로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권역별로 배분한다.”라고 하면 모를까요. 이번에는 첫 공고가 그렇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선정된 사업 이후에 후속 사업의 중복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감사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출 감사

- 확산사업 부분에서는 축제형과 역량강화의 구분 없이 나갔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선출 감사

- 그런데 이번에는 잔여예산을 가지고 세분화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로 사업 편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아까 감사님께서 지적하신 기 선정된 지역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경남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정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복을 하지 말자.” 이것은 순회사업이고 가뜩이나 여러 개의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형편에서 문화향유 관련한 사업들을 중복하지 말자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저는 신청자들의 수고로움을,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했을 경우 부산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배제가 되었을 때를 고려하자는 게 감사님의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얘기를 하든지요.

○나종영 위원

- 여기에 용어가 권역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특히 부산만 제외한다고 하면 너무 혼란스럽죠. 그 말을 아예 빼면 몰라도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강원과 중복을 다 따로 해야죠.

○김기봉 위원

- 우리가 1차 공모를 할 때 권역별로 선정하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공고가 안 나왔던가요. 결과를 놓고 분배를 하려고 하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나종영 위원

-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축제와 역량강화가 그때는 분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 공모를 할 때는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자는 뜻이죠.

○김기봉 위원

-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권역별로 나눠줄 수가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왜냐 하면 2군데밖에 선정을 못 하거든요. 지금 선정하는 부분들이 부산 1군데가 선정되었고 나머지 2군데밖에 선정을 못 합니다.

○나종영 위원

- 강원, 충북, 대전, 세종, 충남 등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하더라도 중부권에서 1개, 호남권에서 1개를 선정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고 영남권에서 1개가 선정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중부권과 호남권으로 뽑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나종영 위원

- 그런 취지죠.

○김기봉 위원

- 그런데 처음에 나갈 때 그렇게 공고가 나갔으면 모르지만 처음에 나갈 때는 그렇게 공고가 나가지 않았는데요.

○나종영 위원

- 그래서 기존의 공모(안) 말고 이번에 추가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승인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지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추가 공모(안)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산만 빼고 나머지를 하자는 것은.... 지금은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나종영 위원님은 권역별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나종영 위원

- 맞다고 생각해요. 현재 사무처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김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공고할 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혁수 위원

- 아까 김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 제안을 한 대로 모두 드러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심사위원한테 부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인데요.

○나종영 위원

- 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김혁수 위원

-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소액다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업취지를 심사위원들이 알면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단체한테 2차 인터뷰 때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기 선정된 지역이 영남권이기에 영남권 이외의 지역에서 선정한다는 부분을 미리 밝히고 공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종영 위원

- 지금 이 표현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오해를 받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고 김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잘 설명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나 심의위원들한테 그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내용을 보고 지역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일하기 쉽도록 위원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사무처가 일하기 쉬운 게 아니고요. 선정된 단체한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신청단체의 혼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심입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이 사업이 되면 호남권 또는 중부권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측면에서 넣은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던 것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김기봉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공고 시에 지역 중복과 관련된 부분들을 명기하여 사업공고를 내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의결하는데 대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위원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은 이것을 표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인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위원

- 예.

○나종영 위원

- 그러나 발의한 쪽에서는 권역별로 나누고 영남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영남지역을 제외한다는 표시를 하겠다는 것이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대상지는 권역별로 나뉘도 좋은데요. 신청단체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업이 이루어지는 대상지가 부산지역이 아니면 된다는 것이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신청단체는 전국 어느 지역의 단체라도 가능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기 선정된 부산지역이 아니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나종영 위원

- 그렇다면 기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시를 해도 무리는 없겠네요.

○박종관 위원장

- 원안이요? 김기봉 위원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김기봉 위원

- 저는 신나는예술여행은 창작지원보다는 문화향유에 방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권역별로 배려하는 부분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사업은 권역별로 선정하겠다고 해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역별 분배를, 예를 들어 지역문화협력소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할 때도 권역별 분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려했던 것은 “우리 예술위가 나주에 있는데 나주 지역에 대한 기여가 없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나주 쪽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그런데 소위에서 정확하게 9억을 배정할 때 3개 권역에 각각 3억씩 하자는 속에서 9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김기봉 위원

- 공고가 나갈 때 그렇게 했나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공고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왜냐 하면 프로그램, 일정, 장소는 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단체는 호남에서 하고 어떤 단체는 영남에서 하는 등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런데 어차피 추가 모집을 하면서 액수도 3억, 3억, 3억으로 가야 하는데 2억, 2억으로 가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공정분배도 아니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당초에 비해서 짧거든요.

○김기봉 위원

- 그것은 결과의 문제죠. 그래서 지난 번 154건이 들어왔으면 그때 3건을 모두 선정했으면 괜찮은데요. 154건 중에 1건만 선정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158건이었죠?

○김기봉 위원

- 그만큼 지역의 수요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159건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159건 중에서 1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3억, 3억, 3억의 지역별 분배도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2억, 2억이잖아요?

○김선출 감사

- 김 위원님, 이것은 순회사업으로 골고루 문화향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소위에서 3개 권역으로 하자고 했는데요. 사업의 취지를 잘 모르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서 1개밖에 안 되었고 3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액수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2군데는 배분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지역에 있는 단체나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향유지역은 이 2개의 지역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기봉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159건이 들어왔습니다. 159건 중에 3개 권역으로 나뉘었습니다. 3개 권역에서 하나씩 선출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니까요. 그런데 영남권에서 1개가 되었고 호남권과 중부권에서는 대상자가 없었다고 읽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심의결과 보고를 그렇게 해야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공고가 나갔듯이.

○김기봉 위원

- 아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실 때도 159건을 분석해서 159건 중에서 영남권에서 59건이 들어왔고 호남권에서 50건이 들어왔고 중부권에서 50건이 들어왔는데 영남권 59건 중에서 1개를 뽑았는데 그것이 부산이고, 나머지 호남권과 중부권에서는 마땅한 게 없어서 뽑지를 않았다고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처음 전제할 때는 권역별로 대상지 공고가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심의할 때는 이 사업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인지를 심의위원들이 판단하신 건데요. 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고 판단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기봉 위원

- 조금 전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3개 권역별로 해서 선정하기로 했었다고 하면 공고가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전달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논의를 했지만 일단 그 논의의 전제가 되기 전에 신청한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하신 거죠.

○김기봉 위원

- 그러면 저희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59건 중에 1건만 선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라는 부분을 갖고 얘기한 것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상당수가 탈락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159건 중에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1차와 2차 심의를 했는데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면 영남에서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잠깐만요. 지금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따지다보면 회의 진행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공고가 권역별로 뽑아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 내부규정이라면, 1차적으로 심사위원이 볼 때 권역별로의 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취지에 합당한 조건이냐가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1개를 뽑은 것 같고요. 결과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지금도 꼬였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지금 새로운 공고가 기존의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이어가 주시죠.

○강홍구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권역별로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면 “부산·영남권에서 이미 사업을 따내서 이미 하고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낫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전에 공고를 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겁니다.

○강홍구 위원

- 지금 차라리 공고에서 밝히고 부산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야죠. 다른 편법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도 강홍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선출 감사

- 사업의 경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커뮤니티를 아우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축제형식으로 돌아가면서 그쪽 지역의 공동체적인 페스티벌 성격이 날 수 있는 것을 원했는데요. 개인들이 특정 장르의 공연이라든가 또는 특정한 장르를 갖고 특정한 지역에만 되다보니까 원래 취지와 다른 제안서가 대부분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원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처음 공고를 할 때 모호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신청단체들이 응모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선정되면 이 2개 권역에서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사전 안내를 하는 차원입니다.

○나종영 위원

- 아까 강홍구 위원님이 말을 했는데요. 기 선정된 단체에 괄호를 해서 영남권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되나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수정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논의가 다시 돌아온 것이거든요. 이왕 시작되었으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그런 오해도 어느 정도죠. 총 159개 중에서 158개가 그런 오해를 했고요. 1개만 제대로 된 이해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을 공고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의 실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보완되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 그리고 축제에만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축제가 아닌 것들은 사업유형 등을 볼 때 상당한 곡해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축제형과 역량강화형으로 나누면서 어느 정도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장치를 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들은 ‘지역제외’를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강홍구 위원

-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 위의 민간주도형 2차도 사업대상자에 서울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명시되고 부산 등은 명시 안 된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고요. 우리가 편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대고 명시를 해서 그쪽 사람들도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지원할 대상을 명료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창주 위원

- 지난 얘기를 또 하는데요. 159건 중에 1건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위원회 사무처에서 어떻게 전달을 했는가? 그 친구들이 꼭 1건만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1차로 서면심사를 했고요. 그 결과 9건 정도 내외의 2차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3건을 선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건만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9건을 인터뷰심의를 했을 때 위원들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각 개별 단체들의 제안서를 봤을 때 너무 자기 단체들 사업 중심으로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취지와는 맞지가 않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 축제로 기획은 했지만 인터뷰를 한 결과 단체의 역량 등 여러 가지 심의 요소에 따라서 선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결자해지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부분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해소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문화양극화 해소보다는 ‘문화균형발전에 기여’ 라고 목적 자체를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 사업에서 이미 된 부분을 명기했으면 좋겠어요. 권역 별 지원을 통해서 지역 간 주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하는데 1차에서 영남권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중부권과 호남권에서 한다는 부분을 지원대상 사업에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지금 김기봉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제안내용을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하겠습니다. 영남권은 되었기 때문에 2개 지역으로 하겠다고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고문을 수정하여 신청단체의 혼돈을 최소한 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신나는예술여행(발굴형) 추가공모 추진계획(안)은 지금까지 고민하신 대로 지역 등 중복 요인을 사전에 명기해서 공고하여 현장예술계의 혼돈은 최대한 피하도록 공고문에 담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 신나는예술여행(청년예술형) 추진계획(안)입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이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안건번호 제 726호 2019 신나는예술여행(청년예술형)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도 예산을 할 때 위원회 의결에 반영되었던 사안은 아닙니다

다. 다만, 정부 정책상 청년예술가의 공공영역 진입 장벽을 낮춰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청년예술가의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안에 30억 원을 편성해서 저희 기금에 청년사업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예술가 사업이 당초 목적인 문화향유권 신장의 목적을 반영하면서 대상을 청년예술가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청년예술가 관련 사업들이 총 3가지가 신규로 반영되었는데요. 하나는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에 10억이 반영되었고, 국제교류진출과 관련해서 9억 원, 그리고 이 사업인 문화향유 프로그램에 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목적으로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안)은 문화향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30억 예산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2)번 추진방향을 보면 지원대상이 청년예술가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출연진 전원이 청년예술가로 필수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획·행정 인력 또는 제작진의 경우에는 청년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은 장르 제한이 없이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융복합적인 사업 형태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3페이지의 지원신청자격을 보시면 문화예술 관련 단체,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광역·기초 문화재단 모두를 포함하게 되고요. 지원 결정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를 보시면 사업대상지를 6개 권역별로 나눠서 신청 접수를 받고 6개 권역별로 따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단체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1개 권역을 사업대상지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사업 당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심의계획은 발굴형사업 심의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심의기준을 그대로 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PT와 인터뷰심의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권역별로 하도록 하고 해당 권역별 고 평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평가접수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1차 서류심사에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는 공모안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고 39세 이하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심의하시고 의견을 나눠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본부장 이하 배석한 부장과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위원

- 제 기억에는 이 사업은 현장소통소위에서 공정보상을 올해 사업 중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자고 한 것이 이 사업 같은데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것은 생애 첫 지원사업입니다.

○김기봉 위원

- 이것이 아닌가요?

○박종관 위원장

-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생애 첫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예술가 사업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창작 쪽의 생애 첫 지원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개되는 청년대상 사업은 총 3가지입니다. 국제예술교류만을 상대하는 9억짜리 트랙이 있고요. 생애 첫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문화재단에서 첫 술 프로젝트 형식으로 된 바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별도의 트랙으로 창작 쪽으로 10억을 별도로 해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만, 오늘 의결해 주실 내용은 신나는예술여행(청년예술가) 추진계획입니다.

○조기숙 위원

- 몰라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문화예술 관련 협회 및 단체, 법인이 자격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헤더는 모두 나이가 먹었는데요.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협회나 단체, 법인이면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문화예술단체면 꼭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무용단이나 극단도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숙 위원

- 그러면 젊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단체여야 하나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그 단체의 성격이 젊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에서 출연자들이 청년예술가입니다.

○조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개인은 신청을 못합니까?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연합해서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원규모가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단체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됩니까?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법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됩니다. 그룹 활동을 하는 청년그룹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데 애매하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관련 협회,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법인은 안 된다는 것인데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첫 번째가 문화예술 관련 협회 및 단체입니다.

○나종영 위원

- 지원신청자격을 증빙하는 것은 그런 서류고요. 젊은 청년작가들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냐는 겁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그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문예진흥기금사업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나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이것은 청년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이, 이른바 지원 장르의 벽을 낮추도록 설계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이지 않

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예진흥기금사업은 특별하게 법인형태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법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단체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요구를 할 뿐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개인이 제외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 가능하면 많은 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그룹 형태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청년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취지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구만 읽으면 그런 것이 안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재단 등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문구로는 그런 것이 안 느껴지고 기존의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신청자격은 조기숙 위원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반영해서.

○이희경 위원

- 예, 청년예술가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식으로 취지가 더 명료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문화예술 관련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강화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청년예술가 쪽의 부대효과가 없도록 설계되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 것들이 신청자격 등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희경 위원

- 예,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청년들이.....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술위는 청년들의 진입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요. 신청자격에서부터 문화예술 관련 협회라고 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단체를 더 주목하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숙 위원

- 여기 단체 앞에 '예술단체' 라고 넣으면 어떤가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만든 단체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회사로 보면 사업자등록증은 가졌지만 개인이 대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술단체라는 것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 명의의 대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아마 우리 예술단체 중에 그런 단체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단체도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청년예술가의 참여 또는 청년예술가를 중심으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청년예술가가 기획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낼 때 이것은 청년예술가니까 나이를 기재해야 되겠네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저희들이 신청서에 출연진에 대한 나이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냈는데요. 실제 거기에 관련해서 출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청년 이상인 분들은 출연을 아예 못 하는 건가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지금 추진방향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프로그램 출연진 전원은 청년예술가로 구성한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면 기획·행정인력 또는 제작진의 경우를 제외하면 출연진은 청년예술가고 기획·행정인력, 제작진은 청년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청년은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작 쪽도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45살 먹은 사람이 기획을 하고 출연은 모두 청년들로 구성된 사업은 된다는 건가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김기봉 위원

-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기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출연료를 잘 주려면 공정보상 부분을 이 사업에도 적용을 하든지.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을 실제로 하는 분들한테, 청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공정한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에도 공정보상 부분을 적용하면 안 될까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표준계약서 등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김기봉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김기봉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 청년이 주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그냥 주가 되어야 한다는 넓은 개념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제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봉 위원

- 저는 기획·행정인력 또는 제작진은 제외가 아니라 기획·행정인력 또는 제작진도 모두 청년이 하는 것으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어떨까요?

○이희경 위원

- 그러면 너무 안 나올까봐서 그런 건가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요. 우리 예술단체의 속성상 꼭 청년으로만 된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종영 위원

- 오히려 그것이 더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김기봉 위원

- 어차피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 제한을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나이 40세 이상은 출연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제약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려면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강홍구 위원

- 그러면 좋겠는데요. 너무 제약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뒤에 보면 “단, 기획·행정 또는 제작진의 경우는 제외” 라고 했지만 청년일 경우 가산점을 준다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청년들이 할 것 같은데요.

○나종영 위원

- 예를 들면 단체,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기획해서 청년들을 출연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약하면 단체나 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제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취지를 살려서 한다면 제작진까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체가 청년으로 구성된 사업일 경우에는 우대한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그것을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 때 논의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를 조금 더 하고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학과 미술인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내용도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르 편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강홍구 위원

- 제 생각에 미술도 꼭 개인이 아니어서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콜라보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구나 5,000만 원이나 되는 지원금을 개인이 받는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편파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나 문학 쪽도 콜라보를 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학 쪽은 어떻습니까?

○나종영 위원

- 문학 쪽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5,000만 원이 안 들어요.

○김기봉 위원

- 문학 축제 같은 것은 기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종영 위원

- 축제를 하더라도 다른 장르와는 다르니까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이 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합니다.

○김선출 감사

-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요. 우리 시대의 문제인 청년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활동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신나는 예술여행이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응모할 수 있게 하는데요. 청년 예술형 같은 경우 이른바 지역할당제 성격을 가미를 해서 그쪽에 치중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왜냐하면 서울 편중이 많은데요. 청년들까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역할당제 성격을 많이 가미했으면 합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이 사업을 권역별로 나누면 이 사업자체가 문화향유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단체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해당하는 단체 간에 교류도 할 수 있고 단체 소재지를 국한하면 계획의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열어 놓았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강홍구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아까 나종영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고 나온 얘기입니다만 5,000만 원에 프로그램 진행횟수를 보면 40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을 받아서 40회를 진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유인택 위원

- 회당 125만 원입니다.

○강홍구 위원

-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1개의 전시회를 일주일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7회로 봅니까? 아니면 그림을 10점을 그렸으면 10회로 봅니까?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1번 할 때마다 횟수로 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체험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도 모두 횟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좀 애매한 대답이네요.

○강홍구 위원

- 실행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김기봉 위원

- 이 사업은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형 하나를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전이든 사업 이후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청년들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선 신나는예술여행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을 하나 뺐잖아요? 이 사업에서도 그것을 하나 뺄 수는 없나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이 사업 자체가 청년예술인 따로입니다. 아까 창작 쪽과 국제 쪽은 별개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나는예술여행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사업도 청년예술가형도 그 내용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는 국제 쪽에서는 청년예술인 역량강화 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구별해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창작 쪽에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청년사업에 대해서 자격요건 등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신나는예술여행은 순회사업 쪽에 포함된 사업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다음 달쯤에..... 지금 현재 문학, 시각, 공연분야의 첫 생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세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어 소위원회 등에 보고될 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예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이미 국제 쪽에서 세팅이 돼서 오늘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국제 쪽은 네트워크 하더라도 국내 쪽의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창작 쪽을 할 때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르코혁신 과제에도 있습니다. 아까 역량강화형 사업에서 청년예술가 쪽도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어쨌거나 크게 보면 청년예술가 사업이 3가지잖아요? 그런데 문화향유 쪽의 측면에서 신나는예술여행이 진행되는데요. 사실 그냥 가서 자기의 것을 베풀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장기적으로 창작과 연계가 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정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살고 계셔서 지역의 현실을 잘 모르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청년사업을 하면 청년이 없어서 반납하는 곳이 있고 청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실버로 간다거나 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예술가를 어떻게든 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인력 또는 제작진의 경우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청년들이 모든 것을 하는 데가 당연히 우선으로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 문화누리 카드도 항상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남,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반납해요. 그것은 카드를 쓸 데가 없어요. 신안 섬에서 뭘 살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사려 깊게 생각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월성, 우수성을 닦는 심의제도를 거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특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가 청년으로 구성된 사업에 대해 우대한다는 조항을 사전에 알려 주십사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문학과 미술 등 공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문학과 미술 쪽 위원님들이 괜찮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내용 이외에 네트워크 관련된 사업을 순회사업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예술가사업 대상 역량강화형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신나는예술여행 확산사업 중에서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도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 지금 성안을 해 주세요. 의결을 해야 하나까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이 사업에서 푸는 게 아니고요.

○박종관 위원장

- 생애 첫 지원 쪽으로 옮겨가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선출 감사

- 아까 역량강화요.

○박종관 위원장

- 역량강화 네트워크 쪽이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그 사업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기봉 위원

- 예. 제가 얘기했던 공정보상 부분을 표준계약서로 같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 사업심의 심사평을 보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지역관광명소브랜드사업의 심사평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듯이 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나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기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가 건당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인데요. 생애 첫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공정보상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업공모 할 때 소요되는 직접 경비 부분에 이 부분을 명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기봉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공정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고 청년만으로 구성된 사업은 우대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지원신청자격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명확하게 우대하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가지를 반영하여 수정의결하려고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은 2019 한국창작예술아카데미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이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안건번호 727호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고요. 지난번에 의견 주셨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총규모 예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창작자가 직접 지원을 받는 금액이 총 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작분야는 총 33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문학 8명, 시각예술6명, 공연예술 19명, 기획자 8명, 무대예술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문학이 8,000만 원정도, 시각예술이 1억 3,200만 원정도, 공연예술의 연극이 1억 6,500만 원정도, 무용 1억 5000만 원, 음악 1억 4,000만 원, 전통예술 7,500만 원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획자과정이 1억 400만 원, 무대예술이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학 분야의 직접 지원금 가운데 6,400만 원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사업의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사·연구부터 최종 발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주요 변경 사항을 보시면 예산삭감에 따른 2018년 대비 모집정원이 일부 축소가 됩니다. 2018년도에 56명 정도에서 2019년도에는 49명 정도로 배정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2018년도에는 중간평가 과정을 통해서 최종결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전체 과정 중심으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중간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과발표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정도를 차등화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에서 공연예술분야에 연극, 무용, 음악, 다원, 전통 등 5개 분야로 진행되었는데요. 2016년 이후에 발전적 계승차원에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전통예술분야를 전체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예술분야의 선정건수가 미비한 상황이라서 2019년부터는 전통예술분야를 3명 정도 선발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14년도, 2015년도, 2019년도에 전통예술분야에서 선정된 예술인들의 수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1차 서류 통과자를 2배수정도로 선정해서 두 번째 2차 PT와 인터뷰심사를 진행해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발표 탈락제도를 폐지하고 중간발표 심의를 통한 최종발표 지원금의 규모를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직접 지원 외에도 별도로 마련된 일반수용비나 별도운영비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예술가들이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이 가능하다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4월 15일까지 정기공모 안내 및 지원신청서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4월 2일에는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심의를 진행하고요. 5월 말에 최종 의결을 통해서 결과발표가 되는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전차(前次) 결과보고 때 언급한 대로 이 사안은 지난번 회의에 올라왔다가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유보가 된 사안입니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전통분야의 정확한 인원수를 할당해 달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수정되어 보완된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아카데미라고 했는데요. 연구생을 뽑는 거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맞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시와 소설은 각 4명씩 뽑네요? 포상금으로 4명을 뽑으면 1명 당 800만 원인데 무슨 기준으로 주는 건가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포상금은 작품을 발표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요. 통합되어 있는 책자가 발간됩니다.

○나종영 위원

-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1,600만 원인데요. 이미 4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그렇습니다.

○나종영 위원

- 책을 내지 않으면 안 주지만 아카데미에 들어왔고 책을 내면 800만 원을 주네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그렇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1,600만 원을 갖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문학의 전체가 8,000만 원 아닙니까? 6,400만 원 포상금을 빼면 1,600만 원이잖아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1,600만 원은 리서치비용이라고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구과정비로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전체 8,000만 원 중에서 6,400만 원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포상금 형태로 지급되고요. 1인당 200만 원씩 8명에게 작품을 만들기 전에 연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본인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그것은 저희가 심사단계에서 계획 과정을 보고 심사를 합니다.

○나종영 위원

-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사람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것은 따로 있고 1,600만 원이니까 8명에게 200만 원씩 스터디비용으로 주고 나머지 성과물에 대해서는 800만 원을 준다는 것이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그렇습니다.

○나종영 위원

- 이해가 됐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공연예술의 음악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국악/양악 융합관현악을 제시해서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규정을 오픈시켜서 해 놓으셨는데요. 사실 제가 자문회의에 갔을 때 “어떤 규정을 정하지 말고 아예 다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번 공모에는 기악, 융합관현악, 무대음악으로 나뉘져 있잖아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갔는데요. 지원신청을 하는 대상 자체가 포괄적 의미로 모집대상을 열었을 때는 오히려 지원신청을 할 때 내가 지원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자체가 극음악, 현대음악, 전통, 융복합 수준이라면 항상 그런 사람들만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야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기술하고 모든 음악 대상이 지원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케스트라 작품 말고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은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배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이회경 위원님 말씀대로 장르를 세분화 하면 복합장르화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회경 위원

- 사실 이런 규정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통예술 분야가 생겼는데요, 지난해 음악 분야의 융합관현악 공연에서는 국악과 서양음악 작곡가들이 1부와 2부로 나누어 발표를 했었어요. 이번에 신설된 전통예술 분야의 신청 자격은 국악과 출신인 건가요? 서양음악 작곡가도 국악기를 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신청을 못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조금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을 소재로 하면 지원 가능한 것인가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지금 전통분야는 전통연회에 중점을 두고요. 전통연회를 소재로 하거나 전통연회의 방식을 취득한 창작 작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회경 위원

- 국악이라고 앞에 쓰셨길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융복합적인 요소보다 조금 더 국악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회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수정·보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전통예술은 선발인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6명으로 추가해 주시고요. 46페이지를 보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이 있는데요. 전통예술에 추가를 해 주세요. 국악, 춤, 풍물, 탈춤, 굿(무속), 전통무예 등 6개 분야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는 단순예술이지만 풍물, 탈춤, 무속 등은 모두 종합예술입니다. 원형은 풍물에서 15개의 명칭을 붙이지만 여기는 창작이니까 6개 분야를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지금 현재 한정된 자원으로 별도의 예산을 배분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각 분야별, 장르별 지원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현장 쪽에서 그간 이어져왔던 규모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이 깨지게 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회에서 전통예술 분야는 별도로 승인된 형태가 아니라서 올해는 3명으로 하고요. 2020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최창주 위원

-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국회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국회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욱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배분을 하세요. 이 분야 때문에 제가 욱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경 위원

-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주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가만히 있려고 했는데요. 작곡가 4명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난해만 해도 인원이 꽤 많았는데, 작년 중간 평가에서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붙였어야 하나 생각되네요. 지난해 네명만 남다보니 올해도 네명이 된 건 아닌가 싶어서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산의 규모가 2017년도에 23억 원이었고요. 2018년도에 16억으로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삭감의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삭감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예산삭감이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블랙리스트 징벌적 예산삭감에서 복구가 되지 않은 것 때문이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여쭙본 것입니다.
지금 이회경 위원님 말씀은 장르를 세분화 하면서 단점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창주 위원님은 전통예술을 6명으로 늘리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서로 굉장히 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논의를 지난 회의에서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게 반영돼서 전통예술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3명이 된 것인데요. 인원을 추가로 요구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김혁수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저도 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할지도 모르지만 작가, 연출, 극작, 무용 등에 전통분야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르별로 쪼개자고 하면 양보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

요? 저는 오히려 다른 장르보다 전통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세계지원기구 어디도 전통을 지원하거든요. 전통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당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같은 영역 안에서 다른 예술분야와 형평성, 적합성을 다투면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차(前次)에서 이 문제 때문에 창작아카데미사업이 공모되지 않은 채로 한 달이 지났고요. 의결해 주시지 않으면 사업을 실행하는데 어려운 형편이 됩니다. 최창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나종영 위원

- 제 입장을 말하면 문학의 숫자는 4명인데 돈은 1,000만 원씩밖에 안 됩니다.

○조기숙 위원

- 다 그런 입장이니깐요.

○나종영 위원

-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연출은 3명인데 1억 500만 원을 주잖아요?

○조기숙 위원

- 최 위원님의 안을 충분히 고민하고 나온 안이니깐 이 정도에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주 위원

-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셨죠? 블랙리스트인데 전통예술은 블랙리스트를 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예술을 자꾸 삭감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찾아가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손혜원 의원과도 같이 대화를 했는데요. 5차례의 토론회를 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너무나 몰랐다.” 그러니까 알면 큰일이고 모르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7기는 어느 위원이 위촉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모르고 주장도 안 합니다.

○조기숙 위원

- 그냥 의결합시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바로 의결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최창주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지원하자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미루어진 사안인데 또 미루어지면 안 되

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최창주 위원

- 그냥 다수결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경학 사무처장 직무대행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해서 한 달동안 의결이 유보된 것이고요. 저희들 자료 곳곳에서도 나오시다만 주요인이 전통예술을 창작영역에 신설해 달라는 요구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로성 게임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49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49명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9억 4,2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공연예술이 늘면 다른 쪽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로성 게임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전통예술을 신설하려고 하면 다른 분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14년도까지 진행되었던 AYAF라는 차세대예술육성사업을 계승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 전통분야는 명확하게 장르의 구분이 있었고 적을 때는 4명, 많을 때는 6명이었는데요. 매년 그것은 어떤 사람이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인력을 선발했던 것입니다. T/O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전 분야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49명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9억 4,2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3월과 4월에 해야 할 일이 2020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야 하고 저희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요. 이 사업도 주요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전통예술뿐만 아니라 타 장르의 전체적인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달간 유보가 되면 사실상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니깐 최창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볼륨을 높이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꼭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홍구 위원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나요?

○양경학 사무처장 직무대행

- 당연히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원안을 수정한 이번 247차 위원회에 올라온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공모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7인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8대 1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8인, 반대 1인)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워크숍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임명되신 유인택 위원님과 김혁수 위원님께서 자리를 이동해야 형편에 있는데요. 나머지 의결안건인 소위원회 의결안을 상정해서 의결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봐 주셨으면 합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안건번호는 제 728호입니다.
2019년도 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안)입니다.
앞서 워크숍에서 논의할 때 내부위원도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안건제목은 2019년 소위원회 구성(안)으로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제 32조와 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8조에 따라서 2019년도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지로 배포해 드린 2019년도 소위원회 구성 현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이미 2월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9개 소위원회는 지금 별지로 제출해 드린 내용대로 내부위원 2~3인 그리고 외부위원 작게는 3인에서 많게는 7인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명단을 보고, 나중에 하더라도 오늘 의결에서는 유보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조기숙 위원

- 이것은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경 위원

- 일단은 3인만 하고 나중에 추가를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일단 제의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꼭 필요한 분이면 모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희경 위원

- 예.

○김기봉 위원

- 소위원 중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이 올라온 부분들을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외부위원 위촉(안)에서 현장소통소위를 현장소통단을 통한 제 2기 민간위원 선발심사 후 서면안전 상정예정인데요. 현장소통소위와 지역협력소위 등 서면안전 상정예정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정 지역협력위원장님과 지역협력은 상의를 했고요. 성평등도 현장소통소위의 결과를 보고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안전에는 현장소통소위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소위 쪽으로 추천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여쭙봤어야 하는데요. 이 사안 전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회 관련해서요.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김기봉 위원

- 사람 문제이니까 동의합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7분 비공개회의 개시)

(20시 06분)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07분 정회)

(20시 2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상으로 의결안건을 모두 마치고 보고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 4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학 사무처장 직무대행

- 회의자료 55페이지입니다.

○나종영 위원

- 이것을 다 보고할 만큼 중요한가요?

○양경학 사무처장 직무대행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고안건이 4건인데요. 3건은 성평등예술지원소위와 현장소통소위 등과 관련해서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에 문체부와 우리 위원장님과 기관자율운영협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세예술정책에도 발표가 되어 있었고 아르코혁신TF의 조직혁신의제에도 기관자율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이렇게 4가지인데요. 보시고 구두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유인물로 같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자율운영협약과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거치고 현장예술계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징계를 감수해야 했고요. 현장예술계의 신뢰를 다시 얻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자율운영협약이 감당해야 할 예술위원회의 자율권 확보와 관련해서

문서화 하고요. 특히 문서화를 한 부분들을 현장예술계에 알려서 예술계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체부로부터 이런 자율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는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보고안건이지만 긴 부분에 대해서 문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자율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성평등예술 소위원회 첫 회의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강윤주 위원

- 일단 소위의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언제 위원회가 열리느냐?”라고 위원님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구성되었음을 매우 기뻐하셨고요.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달에 2번 모이고 3개월에 한번은 오픈데이블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위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빠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보통 성평등이라고 하면 미투사태를 떠올리면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대처로만 포커스를 뒀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원정책에 있어서, 이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양성평등한 정책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투사태의 대처를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번째 모임이 있는데요. 그때 각자가 이 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안건을 얘기하고 펼쳐놓고 계획을 짜기로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다하는 바가 크니까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장소통 소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20차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기 현장소통위원을 선임하는 일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2기 위원 선임을 앞두고 있고요. 김기봉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할 내용이 있을 테니까 잠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1기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아르코혁신TF위원회를 계승한다고 해서 아르코혁신TF 민간위원 6인 중에서 3인을 현장소통소위의 위원으로 선임했고요. 그 3인이 추천하신 분들로 1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장소통소위 1기 위원님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2기를 구성하는 부분에 관해서 예술위가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고, 그것은 현장소통소위의 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주자는 얘기가 있어서 현장소통단을 구성하고 현장소통단이 현장소통소위의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현장소통단도 공모를 하고 현장소통소위의 위원도 공모를 했습니다.

현장소통단 공모에는 32인이 공모에 응하셨고 그분 중에 1기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21인이 선정되었는데요. 교육은 17인이 받으셨습니다. 현장소통소위의 위원을 선출할 때는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장소통소위의 위원으로 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일에 현장소통단 17인이 참여를 하셔서..... 현장소통소위는 총 16인이 응모 하였고 16인 중에서 현장소통소위와 정점이 없는 분들을 제외한 11인을 현장소통단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통단에서 11인을 상·중·하로 평가해서 현장소통소위의 위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연령별, 성별, 지역별 그리고 각자 하시는 분들의 장르가 골고루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장소통소위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소위도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현장소통소위에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모셔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지역문화협력소위에서는 2명 정도를 받으실 의사가 있다고 이승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성평등소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소위에서도 혹시 의견을 주시면 25일 현장소통단을 거쳐서 저희가 현장소통소위 위원을 선출하고 그 외의 후보 중에 소위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김기봉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짧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16명이 직접 직무수행계획서를 쓰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내셨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소위를 운영하는 사례나 전례를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서도 이런 것들이 현장으로부터 힘을 받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밖에 모실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보다 다양한 소위원회 네트워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이희경 위원

- 자율운영협약서도 그냥 보고만 올랐던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아직 정식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희경 위원

- 이게 어쨌거나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구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박종관 위원장

- 아닙니다.

○이희경 위원

-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어색한 문장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구 등은 앞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양경학 사무처장 직무대행

- 문체부와 협의한 아주 초안 중에 초안입니다. 계속 수정·보완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너무 사소한 것인데요. 68페이지의 6조의 2항의 3번인데요.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공성”에서 ‘의’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소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자구 수정은 끊임없이 할 것이고요. 지금 이희경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아까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모범을 보여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 소위원회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기봉 위원님을 보면 항상 열심히 해서 보고가 몇 건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으로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소위 외부위원 위촉(안)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자체 위원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올렸는데요.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분이면 개인적으로 여쭙보시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공문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다보면 이것 하나로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김기봉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제도 자체를 상근으로 열어서 하는 게 어떠한 위원 상근 문제는 1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 연구를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녁 8시 33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자구 하나까지 살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고마운 것은 유인택 위원님도 오늘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임명된 첫 날이었는데요. 임명장을 받자마자 나주로 향해서 시간을 다 쓰시고 귀가 길에 오르신 겁니다.

김혁수 위원님 같은 경우도 강원도립예술단이라는 우리나라 공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공립예술단체인데 거기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시면서 어제 작품을 1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모두 하시는 일들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열띤 논의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봉 위원

- 협약서 부분에 관해서 제 11조인데요. 이것은 문체부와 저희 예술위가 협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위의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술위의 독립적인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수립하는데 문체부의 담당 공무원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양경학 사무처장 직무대행

- 이런 것입니다. 11조의 3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4월에 의결해서 문체부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5월 달에 정부(안)으로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이 늘러나는 경우는 없이 대부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편성위원회를 보시면 문체부 직원, 위원회 위원, 사무처 직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예산편성위원회에서 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4월과 5월 중에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문체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고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2년 동안 하시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배제하려면 문예진흥기금(안)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문체부가 참여해서 변동이 없도록 하는 장치로 예산편성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체부와 저희가 논의된 안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문체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종전에는 저희가 안을 만들고 만든 안을 가지고 문체부와 협의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진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후에 기재부나 국회와의 과정 속에서.

○양경학 사무처장 직무대행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저희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예술정책과장, 위원, 사무처가 참여하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이 훨씬 잘 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봉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하고 문체부가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가감, 증삭의 문제를 처음부터 협의테이블을 설치해서 공동 논의하여 예산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기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할 확률이 높은 장치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선출 감사

- 11조 부분은 굉장히 강화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양경화 사무처장 직무대행

- 이 안은 현재 문체부와 저희가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과 협의가 된 안입니다. 그쪽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저희가 올린 안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요.

○김선출 감사

- 그렇죠. 여기 위원까지 포함해서 협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지금이 8시 45분인데요. 오늘 점심부터 오셔서 긴 시간 워크숍과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모든 의결사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24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45분 회의종료)